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35호 | 발행인 : 우남희 | 발행일 : 2015년 3월 10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03 March

육아정보의 접근성 제고되어야

I. 현대사회 육아정보의 접근성, 왜 중요한가?

육아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영유아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아정보가 많아졌으나 이용자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낮은 출산율,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대두되면서 가정 내 일로 여겨지던 육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
 -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써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가 선정되는 등 전계층에 대한 보편적 육아지원 정책으로 전환됨.
 - ▶ 육아지원사업의 확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하는 영유아 부모의 욕구가 증가함.
 - ▶ 최근 영유아 부모들은 세대 간 단절과 유비쿼터스 현상으로 인해 동시대 부모들의 육아 방식을 신뢰하며¹⁾ 온라인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영유아 부모를 위한 육아정보 접근성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 ▶ 영유아 부모들은 육아에 대한 정보를 주로 인터넷을 통해 찾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해당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음²⁾.
 - ▶ 최근 확대된 육아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영유아 부모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것을 염려함³⁾.
 - ▶ 이와 같이 육아정보에 대해 재화의 개념이 부여되고 있어(정보재: information goods)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II. 현대 부모의 육아정보 이용 실태 및 요구

육아정보를 얻기 위해 퍼스널 미디어를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공공 육아정보는 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됨

- 영유아 부모들은 퍼스널 미디어⁵⁾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퍼스널 미디어를 주이용 매체로써 가장 많이 사용하며(59.0%), 지인(20.0%), 기관(16.4%), 매스 미디어(4.6%) 순으로 이용함.

1) 박영주·나종혜(2010). 육아정보 제공 인터넷사이트의 콘텐츠 분석. 사회과학연구, 19(1), 63-85.

2) 한경자·김정수·김숙영(2006). 인터넷 육아정보 제공 사이트에 대한 평가. 아동간호학회지, 12(1), 5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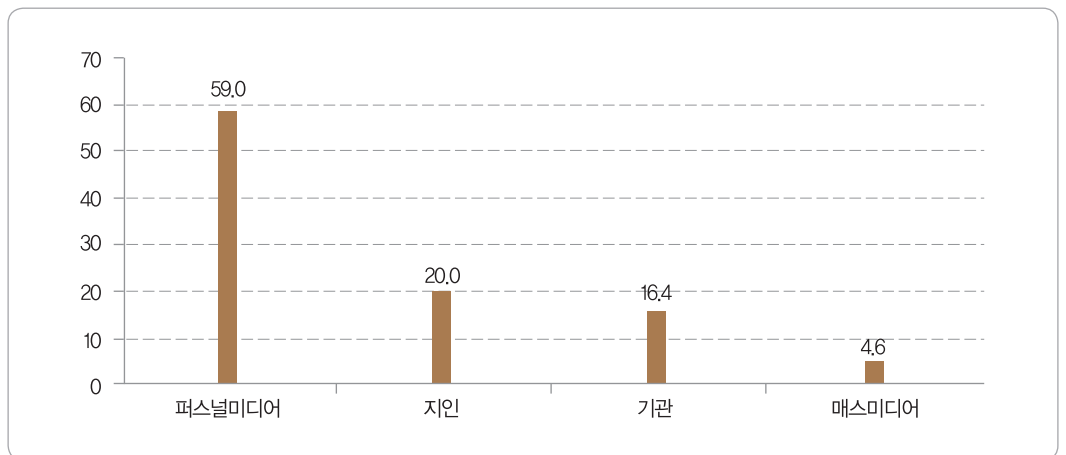
3) 민정원·권미경·윤지연(2014). 영유아 부모의 육아정보 이용실태 및 활용지원 방안. p139.

4) 민영(2011). 인터넷 이용과 정보 격차: 접근, 활용, 참여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48(1), 150-187.

5) 온라인 매체 중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양방향적 참여가 이뤄지는 경우(범용포털, 공공포털, 온라인 동호회, 개인홈페이지, 사기업체 사이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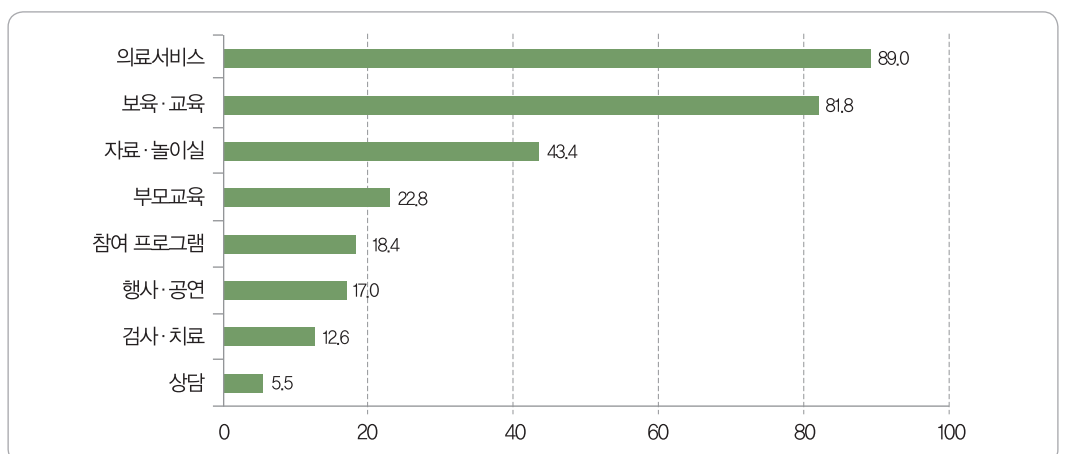
- ▶ 퍼스널 미디어의 하위항목으로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범용포털(58.8%)과 온라인 동호회(26.2%)의 이용률이 높았으며 그 외 육아지원 공공포털, 사기업체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총 이용률은 15.1%에 그침.
- ▶ 육아정보를 찾기 위해 대다수의 부모가 복수의 매체를 활용하며(72.2%), 보조경로에서도 주경로와 상관없이 퍼스널 미디어의 이용률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았음.
- ▶ 영유아 부모들은 육아정보 이용매체 선택 시 이용 편리성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매체 중 퍼스널 미디어의 이용 편리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민정원 외(2014). 영유아 부모의 육아정보 이용실태 및 활용 지원 방안. p.87 <표 IV-1-6>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함.

[그림 1] 육아정보 습득을 위한 주경로

- 한편 부처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육아정보는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 ▶ 영유아 부모의 공공 육아정보 이용경험은 기관 방문이 잦은 보건소, 병원의 의료서비스(89.0%), 보육·교육(81.8%), 자료·놀이실(43.4%) 정보에 국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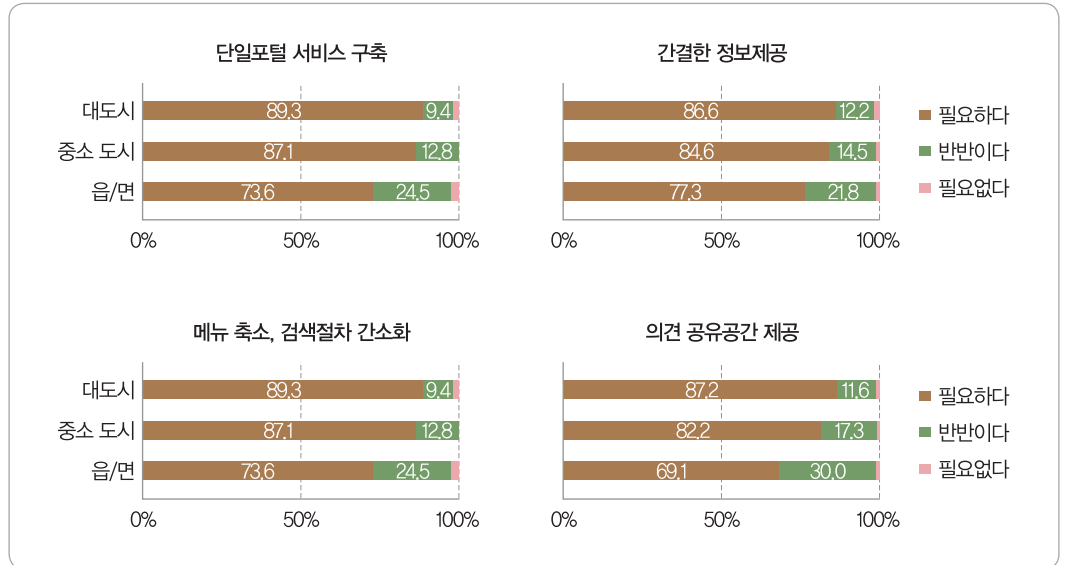


자료: 민정원 외(2014). 영유아 부모의 육아정보 이용실태 및 활용 지원 방안. p.119 <표 V-1-1> 내용을 그림으로 재구성함.

[그림 2] 공공서비스 내용별 이용률 비교

- ▶ 영유아 부모는 대부분의 공공 육아정보를 시군구청,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함.

- ▶ 그러나 실제 기관 방문 시 업무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모르거나 불친절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영유아 부모는 해당 육아지원사업의 유무를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찾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영유아 부모는 공공포털 사이트에 대해 단일 포털 서비스 구축(87.1%), 메뉴 축소 및 검색 절차 간소화(82.4%), 간결한 정보 제공(84.9%), 개인 의견 공유 공간 제공(83.4%)의 개선을 요구함.



자료: 민정원 외(2014), 영유아 부모의 육아정보 이용실태 및 활용 지원 방안. p.147 [그림 V-3-3] 내용을 발췌함.

[그림 3] 공공 포털사이트 개선 요구

- 영유아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육아정보는 공공서비스, 발달, 교육, 의료·안전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남.
 - ▶ 영영아기 발달(27.8%), 영아기 발달(32.0%), 유아기 공공서비스(31.4%), 취학 전 교육(31.7%)으로 가장 필요한 육아정보의 내용이 구분됨⁶⁾.

Ⅲ. 육아정보 접근성 저해 요인

현재 공공육아정보 전달 체계는 이용자의 선호에 적합하지 않으며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부재하고 운영의 유기성이 떨어져 육아정보 접근성의 저해 요인임

- 기관 중심의 정보 전달체계
 - ▶ 정부와 지자체의 육아지원사업은 대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기관을 방문하거나 주민자치센터 등에 비치된 자료를 활용하게 되어 있어 이용자가 선호하는 매체로 정보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임.
 - ▶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관 설치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여도 상대적으로 영유아 인구수가 적은 읍면지역에는 현재 전달체계로는 육아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기 힘들.
 - ▶ 현재 육아지원 전문기관이 설립된 지역에서도 소수 부모들만이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산발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6) 영영아기는 만 0세, 영아기는 만 1~2세, 유아기는 만 3~4세, 취학 전은 만 5세를 뜻함(민정원 외, 2014: 21).

- 개별적인 포털 운영 시스템
 - ▶ 개별 사업을 홍보하고 서비스 이용과 신청을 담당하기 위한 다수의 포털이 존재하나 이들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낮아 영유아 부모의 육아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정형화된 일방향 정보 제공 서비스
 - ▶ 현대 부모들은 온라인 동호회 등을 통해 육아경험을 공유하며 쌍방향 의사소통에 익숙해져 있어 가구여건 등 특성별로 정형화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가 떨어짐.
 - ▶ 다부처가 주관하는 육아지원 관련 신사업들이 다수 존재하나 명칭이 생소하여 영유아 부모들이 검색하기가 쉽지 않음.

IV. 육아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보 전달체계 개선 방안

퍼스널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전달, 체계적인 공공포털 운영, 맥락적인 정보 서비스로의 개선이 요구됨

- 이용자가 선호하는 퍼스널 미디어로 육아정보를 공급해야 함.
 - ▶ 이용 편리성 때문에 퍼스널 미디어를 선호하는 영유아 부모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육아정보 전달체계를 퍼스널 미디어 중심으로 개편해야 함.
 - ▶ 이와 같은 개편은 상대적으로 지원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지역 거주자에게도 온라인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됨.
 - ▶ 특히 퍼스널 미디어 중 스마트 기기를 통한 공공사업의 웹 접근성도 향상되어야 함.
- 공공포털 운영의 체계화가 필요함.
 - ▶ 공공포털들의 홍보를 담당하는 1차 포털과 각 사업의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2차 포털로 구분할 때 이용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음.
 - ▶ 현재 1차 포털의 성격이 큰 ‘마음더하기⁷⁾’ 포털에서 다부처 및 지자체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가 필수적임.
- 맥락적, 유동적인 서비스 성격을 갖추어야 함.
 - ▶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육아지원 중심기관을 선정하여 다부처 및 지자체의 핵심 육아정보에 대한 보편서비스가 구현되어야 함.
 - ▶ 특정 기준별 수혜 사업 목록 뿐 아니라 육아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포함되어야 함.
 - ▶ 영유아 부모와 정보 제공자간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서비스 구현이 필수적임.
 - ▶ 정보 이용자의 요구를 수렴한 육아정보의 창출과 보완이 이뤄지도록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정보 이용자의 요구조사가 이뤄져야 함.

민정원 부연구위원 jwmin@kicce.re.kr

7) '마음더하기'란 정부가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여 행복한 결혼, 출산과 육아에 마음을 더한다는 의미로, 신혼부부 및 영유아 부모가 주이용 대상임. 부처별, 사업별로 산발적으로 나뉘어져 진행하는 다양한 출산육아지원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공공포털로써 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 관련 사이트 연계, 서비스 신청 등을 한 번에 편리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임.